「변재창선교사의 체포와 기소에 관한 성명문」

지난 2010 년 1 월 28 일 목요일 오전에 변재창선교사가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에 속해있었던 전여성헌신자의 거짓 고소에 의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1 일간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의해, 전여성헌신자가 피해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당일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가 오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여성헌신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일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위조된 주장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전여성헌신자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 이런 거짓 주장에 가담하고 있고, 끝까지 경찰과 검찰에게 조차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날조된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체포와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변재창선교사 본인의 인권이 짓밟힌 것 뿐 아니라,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의 성도들과 관련단체의 명예와 신용도 큰 상처을 입었고,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습니다. 더불어 거짓 증언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이름까지도 더럽혀지게 된 것은, 일본의 기독교 전체를 생각해도 큰 타격이 아니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변재창선교사와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는, 여성의 거짓 증언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흉악범 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에 크나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당해야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일본 땅에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변재창선교사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적지않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우리들은 그 분들과 협력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진실을 명확하게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2010 년 2 월 18 일 목요일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
대표목사회 일동